

### 3/3(목) 여호수아 9-12장 누가 지휘관인가?

이 전쟁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.

이스라엘은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.

이스라엘은 계약(언약) 갱신 예식을 시행하였습니다(신27장).

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, 율법을 큰 돌에 기록했습니다.

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 서고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.

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대로 따랐습니다(8:30-35).

그러나 곧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큰일을 당합니다.

보이는 대로,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습니다(9:14).

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스라엘이

사람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(10:1-6).

그럼에도 영적 전열을 정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.

백성을 위해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셨습니다(10:11-13).

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승전을 이어갑니다(11-12장).

말과 병거를 무기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(11:9).

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거점 도시들을 정복하였습니다.

“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

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

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

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(11:15).”

이 전쟁의 지휘관은 <하나님>이십니다.

나는 작은 일까지 <지휘관>에게 묻고 있습니까?

❶ 너무 사소하고, 너무 당연해 보여 즉각 결정하지 않습니까?

❷ 경솔한 결정으로 <사람의 전쟁>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여호수아 9-12장